



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가요?

접하는 소식들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일이 너무 흔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끝내 선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희망하고 확신합니다. 이야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2코린 4,18)을 바라보는 믿음이니깐요.

하느님은 선이십니다. 선은 인간의 완성을 위한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만이 영원하다는 진리는 늘 상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까닭입니다.

악의 종말이 자명한 것은 언제나 상대를 짓눌러 홀로 높아지려는 존재인 탓입니다. 상대를 죽이고 홀로 살려는 심보로 상대를 없애버리는데 끝까지 존재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이것이 자멸하는 악의 시나리오임을 깨치기 바랍니다.

때론 선이 악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사실이 증명해 줍니다. 때문에 하느님께서 악에 단호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의식도 스스로 높이 있다는 인식을 가차 없이 무너뜨리고 부수어내십니다.

덧붙여 세상이 악한 이에게 지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의 관점이 아님을 지적해 드립니다. 선이신 주님을 따르며 희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선한 이웃의 작은 손길은 이미 악을 이긴 선의 승리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하느님을 찬미함 |

(시편 8,2. 4-10)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3장 “온 세상 다스리심”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 저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어느 분이 시편 8장 2절,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8, 2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엄위를 세우셨습니다.

- 4 우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 5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 6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 7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 8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들하며
- 9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 10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감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느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다. 내가 미워하고 때때로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창조되었다. 고통도 죽음도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다.

닥친 고통을 애써 피하려 하지 말고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것들도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도록 하라. 그것들을 통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하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치도록 하라. 내가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모두를 통해 하느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 하느님을 찬양하기 전까지 인간은 아직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악은 내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대자연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추하다, 옳다 그르다며 내 시선으로 가르고 판정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들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어떤 때는 이들을 통해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이 악이다. 내 기준(마음)에 따라 옳음에 감탄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내 기준으로 그렇지 못한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이 악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게 지금 고맙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밋고 상처를 준 사람을 보내주신 하느님에게 원망을 퍼붓기 마련이다. 하느님의 피조물을 하느님의 피조물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피조물처럼 대하는 것이 악이다.¹⁾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6장 “온 세상아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1) 이제민 신부님 홈페이지, 복음화 학교, 악(惡) 1에서 (<http://rijemin.cathms.kr>)

| 일치와 화합의 공동체 |

- 북신동본당 지역장 강태연 글라라 -

영주산 산자락에 자리하여 아름다운 통영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북신동본당은 1995년 2월 20일 봉헌되어 지난해 본당설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갈매기도 시를 쓴다는 예향의 도시답게 본당에도 많은 문학인들이 계시고 탁월한 춤솜씨를 인정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도 계십니다.

저희 공동체는 현재 이우진 사도 요한 신부님 사목 아래 각종 신심단체와 6개 구역, 15개 반으로 구성된 소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재개발이 되는 구역이 있어 현재 잠시 쉬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구역에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구역 3반 소공동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구역 3반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사이에 모여 하느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3~4대를 아우르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대가족 같은 반인데 특별히 여기에는 강현주 로사 반장님의 숨은 노고가 있습니다. 반장님께서서는 매달 몸이 불편한 반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차량으로 모임장소까지 모시고 오신답니다.



이러한 사랑과 정성으로 한 분이라도 더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반원들은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매주 금요일을 본당 어르신들을 위한 날로 마련하여 미사 전례를 어르신들께서 맡아주십니다. 지난해부터는 미사 후 식사를 함께 하고, 어르신 은빛여정을 실시하는데 본당 어르신들은 물론 주변의 비신자 분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사 후 식사준비는 각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북신동본당 공동체는 소공동체 모임과 봉사활동 안에서 서로 일치하고 화합해 나가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봉사가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로 이어져 나간다면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북신동본당 구성원들은 모두 하나 되어 기도드립니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희 길을 바로 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집회 2,6)